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서양의 과학과 기술,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했던 이항로를 비롯한 척사파의 주장은 개항 이후에도 지속되었지만, **개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개물성무(開物成務)와 화민성속(化民成俗)의 앞 글자를 딴 개화는 개항 이전에는 통치자의 통치 행위로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를 의미했다.

개항 이후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양 문명의 수용을 뜻하는 개화 개념이 자리 잡았다. 임오군란 이후, 고종은 자강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反)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 『한성순보』를 발간했다. 이 신문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를 뜻했다. 이 개념에는 인민이 국가의 독립 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었고, 통치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는 의미도 담겼다.

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은 성문화된 규정에 따른 대민 정치에서의 법적 처리 절차 실현 등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의 변화를 내포하는 것이었다. 그는 개화 실행 주체를 여전히 왕으로 생각했고, 개화 실행 주체로서 왕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갑신정변에서였다. 풍속의 진보와 통치 방식 변화라는 의미를 내포한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뿐 아니라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으로 표상되었다. 이후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을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해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했고, 유길준은 『서유견문』을 저술하며 개화 개념에 덧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를 떼어 내고자 했다. 이후 간행된 『대한매일신보』 등의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 전체를 실행 주체로 하여 근대 국가 주권을 향해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을 의미했다.

을사늑약 이후, 개화 논의는 문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졌다. 대한 자강회의 주요 인사들은 서양 근대 문명을 수용하여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앞서 문명화를 이룬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 인식의 준거로 삼았기 때문에 민족 주체성을 간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은식은 ㉠ 근대 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의 형성에 주목하여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그의 기본 전략은 문명의 물질적 측면인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수용하되, 문명의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유학을 혁신하여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그는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해 과학 연구가 시급하지만, 가치관 정립과 인격 수양을 위해 철학 또한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자국 철학 전통의 정립이라는 당시 동아시아의 사상적 흐름 속에서 그가 제시한 근대 주체는 과학적·철학적 인식의 주체이자 실천적 도덕 수양의 주체로서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나)

중국이 서양의 과학과 기술에 전면적인 관심을 기울인 때는 아편 전쟁 이후였다. 전쟁 패배에 따른 위기감은 반세기에 걸쳐

근대화의 추진과 함께 의욕적인 기술 수용으로 이어졌지만, 청일 전쟁의 패배는 기술 수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낳았다. 이에 따라 20세기 초반 진정한 근대를 이루기 위해 기술 배후에서 작용하는 과학 정신을 사회 전체에 이식하려는 시도가 구체화되었다.

옌푸는 국가 간에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경쟁을 부각하고,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기술뿐 아니라 국민의 정신적 자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신적 자질 중 과학적 사유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파악한 그에게 과학 정신이 전제되지 않은 정치적 변혁은 뿌리내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인과 실증의 방법에 근거한 근대 학문 전체를 과학이라 파악하고, 과학을 습득하여 전통 학문의 폐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입장은 1910년대 후반 신문화 운동을 주도한 천두슈에게 이어졌다.

천두슈를 비롯한 신문화 운동의 지식인들은 ㉡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 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달성해야 할 신문화는 과학 및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 문화라 보고, 신문화를 이루기 위해 전통문화 전반에 대해 철저한 부정과 비판을 시도했다.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空想)에 ㉢ 그칠 뿐이라고 주장한 천두슈는 사회와 인간의 삶에 대한 연구도 과학의 연구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제1차 세계 대전의 비극은 과학을 이용해 저지른 최악의 결과일 뿐 과학 자체의 최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지속했다.

한편,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을 시찰했던 장쥘마이는 통제되지 않은 과학이 불러온 역작용을 목도한 후, 과학이 어떻게 발달하든 그것이 인생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했다. 근대 과학 문명에서 초래된 사상적 위기가 주체의 책임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했던 그는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인생관의 문제에는 과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생관을 과학과 별개로 파악했고, 과학만능주의에 기초한 신문화 운동에 의해 부정된 중국 전통 가치관의 수호를 내세웠다.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서양 과학과 기술의 국내 유입을 반대하는 주장이 개항 이후에도 이어졌다.
- ② (가): 유학을 혁신하여 철학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을사늑약 이후에 제기되었다.
- ③ (나): 진정한 근대를 이루려면 기술 수용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인식이 등장하였다.
- ④ (나): 과학 정신이 사회에 자리 잡으려면 정치적 변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⑤ (나): 근대 과학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전통 가치관에 주목하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2. **개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항 이전의 개화 개념은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역할과 관련 있었다.
 - ②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선별적 수용을 통한 국가 진보의 의미를 포함하였다.
 - ③ 『한성순보』와 개화당의 한 인사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자인 왕을 개화의 실행 주체로 상정하였다.
 - ④ 개화의 실행 주체로 왕에게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되었다.
 - ⑤ 『대한매일신보』의 발간에 이르러서야 국가의 주권과 결부한 개화 개념이 제기되었다.

3. (나)의 ‘천두슈’와 ‘장권마이’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통 사상은 과학 및 과학 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 ② 전통 사상의 폐단은 과학 정신이 뿌리내리지 못한 사회 체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③ 과학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도 과학적 방법을 부정할 수 없다.
 - ④ 서양의 과학 정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당면한 국가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 ⑤ 국가의 위기는 과학적 방법으로 사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부재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4.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격의 수양을 동반하는 근대 주체의 정립에, ㉡은 전통적 사유 방식에 기반을 둔 신문화의 달성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 ② ㉠은 주체 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에, ㉡은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 ③ ㉠은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한 과학 연구의 시급성을, ㉡은 과학의 방법에 영향 받지 않는 사상이나 철학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 ④ ㉠은 앞서 근대 문명을 이룬 국가를 추종하는 태도를, ㉡은 전쟁의 폐해가 과학을 오용한 자들의 탓이라는 주장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 ⑤ ㉠은 과학과 철학이 문명의 두 축을 이루는 학문이라는 견해에, ㉡은 철학보다 과학이 우위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5. (가), (나)를 이해한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 마을은 가난했지만 전통문화와 공동체적 삶을 중시하며 이웃 마을들과 조화롭게 살아왔다. 오래전, 정부는 마을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마을 사람들은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자신들이 발전을 이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마을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 마을의 역량으로 달성할 수 있는 미래상을 지속해서 홍보했다. 이후 마을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경제적 이권을 두고 이웃 마을들과 경쟁하며 갈등하게 되었다. 격화된 경쟁에서 A 마을은 새로운 기술의 수용만을 우선시했고, 과거에 중시되었던 협력과 나눔의 인생관은 낡은 관념이 되었다. 젊은이들에게 전통문화는 서양 문화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여겨졌다.

- ① (가)에서 『한성순보』를 간행한 취지는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의 생산 기술 도입으로 변화하게 될 마을을 홍보한 취지와 부합하겠군.
- ② (가)에서 개화당의 한 인사의 개화 개념에 내포된 개화의 지향점은 통치 방식의 변화와 관련 있다는 점에서,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하며 내세운 목표와 다르겠군.
- ③ (가)에서 박은식은 과학과 구별되는 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므로, <보기>에서 젊은이들의 자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는 가치관 정립을 위한 철학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보겠군.
- ④ (나)에서 옌푸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기술과 정신적 자질을 강조했으므로, <보기>에서 마을이 기술의 수용만을 중시하면 마을 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보겠군.
- ⑤ (나)에서 장권마이는 과학적 방법의 한계를 지적했으므로, <보기>에서 마을이 과거에 중시했던 인생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문제는 과학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겠군.

6. ㉠과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다행히 비는 그사이에 그쳐 있었다.
 - ② 우리 학교는 이번에 16강에 그쳤다.
 - ③ 아이 울음이 좀처럼 그치지 않았다.
 - ④ 그는 만류에도 말을 그치지 않았다.
 - ⑤ 저 사람들은 불평이 그칠 날이 없다.

(가)-1문단

서양의 과학과 기술,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했던 이항로를 비롯한 척사파의 주장은 개항 이후에도 지속되었지만, **개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개물성무(開物成務)와 화민성속(化民成俗)의 앞 글자를 딴 개화는 개항 이전에는 통치자의 통치 행위로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를 의미했다.

(가)-2문단

개항 이후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양 문명의 수용을 뜻하는 개화 개념이 자리 잡았다. 임오군란 이후, 고종은 자강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反)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 『한성순보』를 발간했다. 이 신문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를 뜻했다. 이 개념에는 인민이 국가의 독립 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었고, 통치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는 의미도 담겼다.

(가)-3문단

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은 성문화된 규정에 따른 대민 정치에서의 법적 처리 절차 실현 등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의 변화를 내포하는 것이었다. 그는 개화 실행 주체를 여전히 왕으로 생각했고, 개화 실행 주체로서 왕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갑신정변에서였다. 풍속의 진보와 통치 방식 변화라는 의미를 내포한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뿐 아니라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으로 표상되었다. 이후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을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해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했고, 유길준은 『서유견문』을 저술하며 개화 개념에 덧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를 떼어 내고자 했다. 이후 간행된 『대한매일신보』 등의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 전체를 실행 주체로 하여 근대 국가 주권을 향해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을 의미했다.

▶ 1문단을 읽으며 해야 할 생각은 두 가지다.

무엇을 읽고 있는가? 무엇을 토대로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다른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개화’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는 것쯤은 인식해야 한다.

▶ 두 번째 문장을 읽으며 개화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구체화해보자.

문장이 길다면, 주술관계부터 잡아보자.

‘~~ 개화는 ~~를 의미했다’ 라는 문장으로 압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 ‘개화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나 보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읽어보자.

통치자의 ~~과 피통치자에 대한 ~~이 의미라고 한다.

글쓴이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정보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우리는 글쓴이의 의도대로 이 정보를 처리할 때 이분법적으로 기억 속에 남기면 되겠다.

*Tip) 평가원은 정보를 제시할 때 두 가지 패턴을 보인다. 첫 번째, 두 개의 항을 제시할 때는 이분법적으로, 세 개 이상의 항을 제시할 때는 일련의 흐름을 갖추며 제시한다. 전자는 수도 없이 많이 제시된 패턴이며 후자의 패턴을 파악하고자 할 경우 17 수능 반추위 지문을 읽어보기 바란다.

▶ 화제가 ‘개화의 의미’라는 것을 잘 파악했다면, 이 ‘개화의 의미’가 어떻게 서술되는지를 유의하며 읽어보자. (기출을 통해 경험을 쌓았다면 의미가 달라지나? 혹은 새로운 의미와 부딪히나? 정도로 생각할 수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양 문명의 수용을 뜻하는’ 개화 개념이 자리잡았다고 한다. 아직 명확히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으니, 계속 읽어 내려가 보자.

▶ 반서양 정서 교정을 위해 한성순보를 발간했다고 한다. 서양 문명을 잘 수용하려면 반서양 정서를 교정해야겠군~이라고 납득하며 읽으면 된다. 마찬가지로 서양 문명을 잘 수용하기로 했으니까 서양 기술과 제도를 통해 ~~를 하겠군~ 이라고 하나의 맥락으로써 이해하자.

*Tip) 인문 철학 지문은 배경과 주장의 차원에서 정보를 능동적으로 구분하면 더 선명하게 기억을 남길 수 있다. 이런 배경과 주장을 잘 기억하고 싶다면 [서양 문명 잘 수용 (배경)] -->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 (주장)]과 같이 능동적인 범주 구분을 할 것을 추천한다.

▶ 네 번째 문장을 읽으며 반응이 와야 한다.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잠시 생각해보자.

1문단에서 쓴 내용이 재진술되었다는 것이 보여지는가? 인민이 국가의 독립 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곧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가 될 것이고, 통치자의 입장에서 ~~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는 것이 곧 통치자의 통치행위로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의 재진술이라는 것을 읽으며 반응해야 한다.

피통치자와 관련한 부분이 바로 연결되지 못하더라도, ‘통치자의 입장에서’라는 어구가 보이는 순간 위의 내용과 연결하거나 적어도 다시 위에 올라가서 읽어보는 식의 체크가 필요했을 것이다. 즉, ‘**개화 개념**’이 **통치자와 피통치자에 대한 이분법적 구조를 유지한 채로 ‘고종의 개화 개념’에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글을 살펴보면, 통치자와 피통치자에 대한 이분법적 구분을 통해 개화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그다음 문장을 읽어보자. 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이 나오고 있다.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방식으로서의 변화’를 내포한다고 한다. **중요한 정보일까?** 아니라는 대답이 나왔으면 한다. **왜?** 그 ‘또한’ 개화 실행 주체를 여전히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필자가 제시하는 이분법적 틀에서 개화당과 고종의 개화 개념은 사소한 내용이 다를지언정 별반 차이가 없다. 여기서 평가원의 의도를 읽어야 한다. 평가원은 이렇게 써놓고 짜치게 개화당과 고종의 개화 개념의 차이를 묻지 않는다. 묻는다면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면 그만이다. **강약 조절하면서 글을 읽었으면 한다는 뜻이다. 강하게 읽어야 할 건 그 뒷부분이다. 왕의 역할이 사라졌다고 한다. 무슨 뜻일까?** 통치자로서의 개화 개념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곧 우리가 1문단에서부터 끌어온 이분법적 구분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질문이 들 수밖에 없다. **어떻게? 어떻게 왕의 역할을 사라지게 만든거지?** 궁금증을 갖고 찬찬히 읽어보자.

▶ 배경과 주장을 능동적으로 연결하며 납득하자. 왕의 역할 제거가 배경이라면, 왕의 지지자들은 당연히 이를 통치권에 대한 도전 및 개인의 사욕이라 주장할 것이다. 왕의 자리를 갑신정변을 일으킨 사람들이 차지하려 들 테니 말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이 배경이라면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납득~ 납득~하며 읽으면 글이 매우 수월하게 읽힐 수 있다.

▶ 이제 아까 들었던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나온 것 같다. ‘국가 구성원 전체를 실행 주체로 하여’...에서 반응해야 한다. ‘실행 주체’가 무슨 의미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도 좋다. 정 궁금하면 다시 올라가서 읽으면 그만이다. 뭔가 바뀌었다는 인지적 반응만 나타나면 된다. “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국가 구성원 전체를 실행 주체로 하여 근대 국가 주권을 향해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이 곧 왕의 역할을 사라지게 만든 것과 같은 맥락이구나”라는 결론이(앞으로 이것을 맥락으로 찍어누른다고 표현할 것이다) 도출되면 올바르게 읽은 것이다. 어떻게 왕의 역할을 사라지게 만든 건지 하나하나 다 찾아 이해하려고 하면 끝도 없어진다. 말 그대로 맥락으로 찍어누르듯이 필자가 써 준 부분까지만 이해해도 충분하다.

(가)-4문단

을사늑약 이후, 개화 논의는 문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졌다. 대한 자강회의 주요 인사들은 서양 근대 문명을 수용하여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앞서 문명화를 이룬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 인식의 준거로 삼았기 때문에 민족 주체성을 간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은식은 ㉠근대 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의 형성에 주목하여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그의 기본 전략은 문명의 물질적 측면인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수용하되, 문명의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유학을 혁신하여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그는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해 과학 연구가 시급하지만, 가치관 정립과 인격 수양을 위해 철학 또한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자국 철학 전통의 정립이라는 당시 동아시아의 사상적 흐름 속에서 그가 제시한 근대 주체는 과학적·철학적 인식의 주체이자 실천적 도덕 수양의 주체로서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 화제가 바뀌었다는 것이 느껴지는가? 문명에 대한 본격적 논의로 바뀌었다고 한다. 계속 읽어보자. 서양 근대 문명 수용, 근대 국가 건설 (배경) --> 앞서 문명화를 이룬 일본의 지도를 받기 (주장)이라고 한다.

좀 낯익다 그 다음 문장이 조금 난해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주술 관계를 잡으며 찬찬히 이해해보자.

대한 자강회가 민족 주체성을 간과했다고 한다. 직관적으로 맞는 말 같다. 이유를 읽어보자.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 인식의 준거’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스스로 저 두 개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생각해보라. 모두 ‘일본’인 것을 파악했는가? 그렇다면 왜 민족 주체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나오는지도 이해되는가? 우리가 주체로써 서양 문물을 인식하고 수용해야지, 왜 일본이 주체로써 인식을 하냐는 의미인 것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말이 있다. 수능장에서 비문학 지문을 풀 때 지시어가 나타났다. 동시에 옆에 있던 친구가 쓰러졌다. 누구를 살려야 할까? **지시어를 살려야 한다.** 옆에 친구는 ~~감독관께서~~ 살려주사겠지 지시어는 필자가 독자로 하여금 위에 나왔던 상황을 다시금 상기하고 가라는 표지이다. ‘이러한 상황’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다음 문장을 읽어보자. 대한자강회의 주장이 민족 주체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은 상황이므로** (비판이라는 말이 없어도 자연스레 비판으로 읽어야 한다) 박은식은 **민족 주체적인 주장을 내세울 것이라는 예측**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한다. 그렇다면 좌라락 읽어 내려가서 ‘문명의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유학을 혁신하여 재구성하는 것’이라는 말의 뜻이 민족 주체적인 주장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 쉽게 보일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었으니 문장을 다시 읽어보자. (순서는 중요치 않다. 한두 번 지문을 읽은 사람 기준으로 설명하느라 그렇다. 천천히 읽으며 파악해도 된다) 필자는 문명의 물질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을 이분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물질적 측면은 서양 문명을 수용하고 정신적 측면은 지켜나가자는 의미라고 나는 요약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보면 그다음 문장이 재진술이라는 것을 파악하여 빠르게 읽어 내려갈 수 있다. ‘자국 철학 전통의 정립... 곧 유학의 재구성이겠군’ 정도로 생각하고 계속 속도를 높이자. 과학은 수용하고 철학은 지키자고 했으니 과학적, 철학적 인식의 주체이자 실천적 도덕 수양의 주체로서 성격을 띠는 것이 당연하지~ 하면서 가뿐하게 글을 마무리 지어주면 된다.

▶ 총평을 해보겠다. 굉장히 밀도 높고 어려운 글이다. ‘자연스럽게’ 처리해야 하는 문장 독해의 난도가 상당히 높았다. 정보를 처리하는 연습, 재진술을 파악하는 연습, 맥락을 토대로 내용을 예측하는 연습 등 (가) 지문을 여러 번 다시 읽으면서 지문을 읽을 때 해야 하는 생각들을 체화해보도록 하자.

(나)-1문단

중국이 서양의 과학과 기술에 전면적인 관심을 기울인 때는 이편 전쟁 이후였다. 전쟁 패배에 따른 위기감은 반세기에 걸쳐 근대화의 추진과 함께 의욕적인 기술 수용으로 이어졌지만 청일 전쟁의 패배는 기술 수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낳았다. 이에 따라 20세기 초반 진정한 근대를 이루기 위해 기술 배후에서 작용하는 과학 정신을 사회 전체에 이식하려는 시도가 구체화되었다.

(나)-2문단

옌푸는 국가 간에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경쟁을 부각하고,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기술뿐 아니라 국민의 정신적 자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신적 자질 중 과학적 사유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파악한 그에게 과학 정신이 전제되지 않은 정치적 변혁은 뿌리내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인과 실증의 방법에 근거한 근대 학문 전체를 과학이라 파악하고, 과학을 습득하여 전통 학문의 폐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입장은 1910년대 후반 신문화 운동을 주도한 천두슈에게 이어졌다.

(나)-3문단

천두슈를 비롯한 신문화 운동의 지식인들은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 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달성해야 할 신문화는 과학 및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 문화라 보고, 신문화를 이루기 위해 전통문화 전반에 대해 철저한 부정과 비판을 시도했다.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空想)에 ㉡그칠 뿐이라고 주장한 천두슈는 사회와 인간의 삶에 대한 연구도 과학의 연구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제1차 세계 대전의 비극은 과학을 이용해 저지른 죄악의 결과일 뿐 과학 자체의 죄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지속했다.

(나)-4문단

한편,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을 시찰했던 장권마이는 통제되지 않은 과학이 불러온 역작용을 목도한 후, 과학이 어떻게 발달하든 그것이 인생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했다. 근대 과학 문명에서 초래된 사상적 위기가 주체의 책임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했던 그는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인생관의 문제에는 과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생관을 과학과 별개로 파악했고 과학만능주의에 기초한 신문화 운동에 의해 부정된 중국 전통 가치관의 수호를 내세웠다.

▶ (가) 지문을 읽고 2번 문제를 푼 뒤 다시 (나) 지문을 들어가기에 앞서, 적어도 (가) 지문에서 다뤘던 쟁점 정도는 생각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대단한 걸 떠올리기보다는 ‘개화의 의미’, ‘뭔가 자주성을 강조...’ 정도의 생각만 들어도 충분하다.

▶ 배경-주장의 틀을 구분하며 읽어보자. 전쟁 패배에 따른 위기감을 느꼈으니(배경)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겠지~(주장), 기술 수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나왔으니(배경)... 과학 정신을 사회 전체에 이식하려고 하는군!(주장)

▶ 전 문장과 연결해서 이해해보면 옌푸는 ‘과학 정신을 사회 전체에 이식’하려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국민의 정신적 자질’은 곧 ‘과학 정신’이 되리라 예측할 수 있다.

▶ ‘과학 정신이 전제되지 않은 정치적 변혁은 뿌리내릴 수 없는 것이다.’라는 문장을 읽으면 별 내용도 없는데 어렵게 썼는지 성이 날 법도 하다. 혹시 문장이 잘 와닿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인문 철학 지문을 읽으며 자신만의 쉬운 문장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자. 나는 옌푸; 과학 정신 ==> 정치적 변혁으로 구조화한다. 인과의 맥락에서 원인은 결과의 필요조건임을 기억하라. ~원인 --> ~결과는 곧 원인 ==> 결과(조건문)이다.

▶ ‘과학 정신’의 중요성을 역설하고자 한다면 ‘과학 정신’이 무엇인지부터 정의 내릴 필요가 있다. ‘인과 실증의 방법’이 곧 과학의 키워드인 것 같다.

▶ 그의 주장이 천두슈에게 이어졌다고 하니, 기본적으로 천두슈 또한 ‘과학조아’의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측된다. 천두슈의 주장은 어떤지 궁금해하며 읽어보자.

▶ 인문 철학 지문에서 말하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여러 수식어나 연결어미로 문장을 어렵게 표현하곤 한다. 각자 자신만의 문장 간결화 스킬로 이 문장을 요약해보자. 나는 천두슈; 과학 --> 민주 정치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표지를 남기고 간다.

▶ 윗 문단에서 옌푸와 천두슈가 과학에 대한 동일한 관점을 갖는다는 걸 파악하고 내려왔다면 첫 문장부터 맥락에 맞게 읽어 내려가 주면 된다. 천두슈는 신문화를 과학에 근거한 문화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그가 부정과 비판을 시도한 전통문화는 당연히?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문화일 것이다. 아~ 과학조아(배경) --> 전통문화 부정 (주장) 이 되겠구나~ 하면서 계속 읽어가자.

▶ 문장이 길다면 끊어서 이해하자. 천두슈; [~과학-->~철학 / ~사상] 이므로 천두슈; [과학==>철학/사상]이다. 계속 부정어를 사용해서 인과의 맥락을 표현하고 있는게 보이는가? 왜 내가 계속 이걸 조건문의 맥락으로 치환하고 있는지도 보이는가? 천두슈는 지금 과학만으로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거다.

▶ 과학의 부정적인 면모가 나오고 그에 대한 천두슈의 생각이 나왔다. 예민한 독자라면 여기서 흠...천두슈에 대한 반박 의견이 나오려나?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궁금해하며 읽어보자.

▶ ‘통제되지 않은 과학이 불러온 역작용’을 읽으며 전 문단에서 읽었던 제1차 세계대전의 비극과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계속 이렇게 맥락적으로 연결해서 읽어주는 연습을 해두면 글을 정보가 아닌 맥락으로 처리하는데 더 수월해질 것이다.

▶ 항상 대조는 질적 차이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천두슈와 장권마이의 의견이 어디까지 동일하고 어디에서 질적 차이가 어디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가? 스스로 답을 해보자.

천두슈와 장권마이는 모두 과학을 존중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과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범위가 다르다. 천두슈는 철학과 정치의 영역까지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장권마이는 과학이 철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어차피 문제를 풀 때 보게 되겠으나, 천두슈와 장권마이의 입장에서 {과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국가적 위기}의 관계는 어떠한가? 약간 어렵다면, {과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범위}를 기준으로 두 사상가의 의견을 비교/대조하자. 항상 명심하라. 대조는 **질적 차이**다.

▶ 대조점이 확실하게 잡혔다면 앞으로 장권마이가 어떤 말을 할지 충분히 예상이 간다. 과학은 과학의 영역에서, 철학은 철학의 영역에서 고유한 가치를 지키자~ 식으로 전개될 것이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장권마이는 중국 전통 가치관의 수호를 내세웠다고 한다.... 어? (가) 지문의 박은식이 떠오르지 않는가? 오오.... 하면서 글을 마무리해주면 될 것 같다.

▶ 총평을 하겠다. 전체적으로 가지문에 비해 난도가 낮았다. 다만 3, 4문단을 읽으며 천두슈와 장권마이의 견해를 비교함에 있어서 단순히 이것과 이것이 다르다~ 식이 아니라 **기준에 근거해서 질적 차이**를 탐색해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항상 말하지만 비교와 대조는 **질적 차이가 핵심**이다.

문제를 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생각은 “이 문제가 무엇을 묻고 있는가”이다.

문제 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 서양 과학과 기술의 국내 유입을 반대하는 주장이 개항 이후에도 이어졌다.

② (가): 유학을 혁신하여 철학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을사늑약 이후에 제기되었다.

③ (나): 진정한 근대를 이루려면 기술 수용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인식이 등장하였다.

④ (나): 과학 정신이 사회에 자리 잡으려면 정치적 변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⑤ (나): 근대 과학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전통 가치관에 주목하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정답: 4번
정답률 65% (1번 10%, 5번 11%)

문제 2번

개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항 이전의 개화 개념은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역할과 관련 있었다.

②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선택적 수용을 통한 국가 진보의 의미를 포함하였다.

③ 『한성순보』와 개화당의 한 인사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자인 왕을 개화의 실행 주체로 상징하였다.

④ 개화의 실행 주체로 왕에게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되었다.

⑤ 『대한매일신보』의 발간에 이르러서야 국가의 주권과 결부한 개화 개념이 제기되었다.

정답: 5번
정답률 55% (2번 17%, 3번 12%)

▶ 물론 공부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지문 속에서 다양한 생각을 전개했으나 실제 수능장에 가서는 조금함 때문에 우리가 지문을 읽으며 드는 생각 모두를 의식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공부하는 지금에서의 우리는 기출을 공부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사고들을 의식적으로 끄집어내는 연습을 하되, 수능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고들을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처리한 뒤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만 의식적으로 끄집어오는 식으로 문제 풀이를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 공부할 때부터 실천적으로 이 문제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는 연습을 해보자.

▶ 거창하게 시작했으나 1번 문제는 그저 단순 사실 일치 문제에 불과하다. 그래도 이걸 정보로써 처리하는 사람과 맥락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1번 문제를 대할 때 느끼는 부담감은 다를 것이다. 맥락적으로 처리하는 연습을 해보자.

▶ 1번 선지부터 보자. 일단 보자마자 애가 답일 확률이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가? 국내 유입을 반대하는 주장이 없지는 않았겠지~ 하며 일단 제껴 보자. 정 헛갈리면 1문단 슬쩍 보고 오면 된다.

▶ 2번 선지다. 유학을 혁신하여~ 주장이 누구의 주장인가? 생각해 내야 한다. _____ 박은식의 주장이 나온 배경을 생각해 보면 대한자강회 때문이었다. 흠. 기억이 안 나면 슬쩍 보고 오자. 을사늑약 이후~라는 말이 바로 보인다. 당연히 맞는 말이군~하며 넘어가면 된다.

▶ 3번 선지다. 기술 수용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이거 옌푸도, 천두슈도 하던 말이잖아?

▶ 4번 선지다. 읽자마자 이상하다는 느낌이 오는가? 어떻게 이상한가? _____ 옌푸와 천두슈는 과학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발전하자고 주장한 사람이다. 천두슈와 장권마이의 쟁점도 과학을 다른 분야에 이용할 수 있는지다. 근데 과학 정신을 위해 선행돼야 하는 단계가 있다고? 의문이 안 들 수가 없다. 정 헛갈리면 슬쩍 나 지문의 2, 3문단을 읽고 오자. “과학 정신이 전제되지 않은 정치적 변혁”이 눈에 띈다. ‘과학 정신과 정치적 변혁의 인과관계를 뒤집어 출제한 것이군!’까지 생각해 주면 아주 나이스하다. 옳다구나~ 하고 4번 찍으면 된다. (2411 노자의 도 지문의 사실 일치 문제서도 비슷하게 출제된 바 있다.)

▶ 5번 선지다.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은가? 장권마이 소리하고 있군~ 하고 가뿐히 넘기면 된다.

▶ 이런 사실 일치 문제를 잘 틀리는 사람들은 평소의 독해력이 문제라기보단 문제를 푸는 습관이 잘못 들여져 있어서 그럴 경우가 크다. 예를 들어 문제를 풀다가 지문으로 돌아오는 걸 불편하게 여기던가 등등. 풀다 헛갈리면 지문으로 돌아와도 된다. 어차피 시간 오래 걸리지도 않는다. 물론 실력이 오르고 글이 눈에 익으면 자연스레 안 하게 된다. 하다 보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

▶ 문제 발문만 보면 애도 사실 일치 문제다. 다만 개화가 가 지문의 주제였다는 걸 생각하고 들어가자. +이왕이면 가지문 읽고 바로 넘어와서 풀고 갔으면 좋겠다. 따끈따끈하게 가 지문에 대한 내용이 기억 속에 남아 있을 때 처리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1번 문제 2번 선지까지 처리하고 간다면 베스트다.

▶ 1번 선지다. 우리가 개화 개념을 통치자와 피통치자로 이분법적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떠올리며 넘어가면 된다.

▶ 2번 선지다. 한성 순보? 흠. 까먹었을 수도 있다. 중요한 녀석이 아니었으니까. 만약 수능장에서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이 낯설게 보인다면 기준부터 잡아보자. 기준은 갑신정변이다. 왜? _____ 갑신정변을 전후로 이분법적 정의, 나아가 개화의 실행 주체가 바뀌기 때문이다. 한성순보가 갑신정변 전에 있었던 것만 기억난다면 아 맞다~ 하면서 쉽게 지울 수 있을 것이다.

▶ 3번 선지다. 2번 선지의 연장선인 동시에 매우 중요한 선지다. 이걸 답으로 찍은 독자들이 있다면 통렬한 반성을 하기 바란다. 개화의 실행 주체가 2, 3문단의 중요 화제였는데 이걸 놓치고 넘어갔다? Oh no이다.

▶ 4번 선지다. 갑신 정변부터 개화의 실행 주체가 왕이 아니게 되었다는 인식만 갖고 있다면 그렇지~ 통치권에 대한 도전이었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것이다.

▶ 5번 선지다. 위에 선지를 잘 소거했다면 애가 일단 답일 것 같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 것이다. 국가의 주권과 결부한 개화 개념이 왜 나왔는지 생각해 보자. 왕에서 국민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나왔다. 갑신정변의 부정적 이미지를 떼어내려고...까지 머릿속에서 끄집어 나왔으면 좋겠다. 유길준...서유견문....으음... 이러한 생각을 갖고 4문단을 읽어보자. 우리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뿐하게 5번 답으로 찍으면 된다.

▶ 이 문제를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틀렸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나는 1번보다 더 쉽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하는 정보는 “갑신정변 전후로 개화의 실행 주체가 바뀌었다”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다 맥락이다. 맥락으로 처리하라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와닿는가? 이 주장이 왜 나왔지, 어떤 배경이 있었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그것이 맥락적으로 처리하는 것의 기본적인 자세다.

문제 3번

(나)의 ‘천두슈’와 ‘장권마이’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통 사상은 과학 및 과학 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 ② 전통 사상의 폐단은 과학 정신이 뿌리내리지 못한 사회 체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③ 과학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도 과학적 방법을 부정할 수 없다.
- ④ 서양의 과학 정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당면한 국가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 ⑤ 국가의 위기는 과학적 방법으로 사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부재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답: 3번

정답률:

➤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의 문제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야 한다.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의 문제는 **주관식**이다. 미리 문제만 읽고서 마음 속에 답을 생각하고 가야 한다는 의미다. 자 문제만 읽어보고 스스로 답을 생각해보자. 어떤 말을 해야 정답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까? 천두슈와 장권마이의 공통점을 묻고 있다. 제일 베스트는 **자연스럽게** 둘다 과학의 중요성을 인정했지~ 하며 답을 떠올리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이 겉으로는 쉬워 보여도 조금만 생각하면 이를 위해 **복합적인 독해 감각**이 작용해야 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보겠다.

아까 지문을 읽으며 장권마이와 천두슈의 견해를 조건문의 맥락에서 해석해보자고 했다.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_A와 {국가적 위기}_B라는 두 진리집합에 대해 장권마이와 천두슈는 포함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천두슈는 “**모든** 국가적 위기는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장권마이의 생각은 어떨까? 장권마이는 “**어떤** 국가적 위기는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국가적 위기라는 기준을 두고 생각했을 때,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범위가 천두슈가 더 넓겠군~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두 사상가의 견해를 **대조**한 것이다. 여기서는 **비교의 맥락**을 묻고 있으니, 아 둘 다 어떤 국가적 위기는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라는 결론을 내려주면 된다.

➤ 그 맥락을 묻고 있는 선지를 살펴보면 당연히 3번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과학의 중요성을 인정했으니 과학적 방법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 하면서 3번을 골라주면 된다.

➤ 유의미한 선지로는 4번 선지가 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 또한 현역 때 이 문제에서 4번을 찍고 틀렸다. 답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4번 선지가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단다. 다른 워딩들 중에서도 ‘충분히’ 이 워딩이 상당히 거슬렸으면 좋겠다. 평가원이 괜히 충분하라는 워딩을 사용한게 아니기 때문이다. 조건문의 맥락에서 읽은 독자라면 “어떤 국가적 위기는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이 곧 A가 B의 충분조건이라는 의미다. 근데 선지가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B가 A의 충분조건이라는 말로써 들리는 것, 이해되는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싶다면 2506 과두제적 경영 지문의 보기 문제 선지들을 분석해보기 바란다. (이것이 곧 우리가 6,9평을 열심히 분석해야 하는 이유다.)